

# 세속사회와 기독교: 세속사회에서 기독교 정치 어떻게 가능한가? 카이퍼리안 기독교정치의 의미와 극복 과제<sup>1)</sup>

들어가면서

왜 카이퍼 정치윤리를 주목해야 하는가?

## 카이퍼리안 신학과 한국교회

오늘날 카이퍼신학은 공공신학과 정치신학의 영역에서 재조명되면서 급부상하고 있다. 북미 신학계는 카이퍼의 신학적 유산을 공공신학을 위한 주요 대상으로 연구 발굴하고 있으며(프린스턴, 휘튼교수), 기독교 정치윤리의 대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스킬렌). 그동안 화란어로 쓰여진 카이퍼리안 신학은 영어번역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카이퍼를 비롯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 칼 바르트신학과 대화하면서 그 공동의 유산에 대해 신학적 토론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 신학계에서 카이퍼리안 신학은 보수신학, 정통주의, 그리고 근본주의적 개혁 신학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한국 보수 장로교 신학 진영에서 카이퍼리안 신학은 마치 북미의 자유주의와 정통주의 신학의 대결상황에서 정통보수신학의 순수성을 수호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분리, 설립했던 그레삼 메이천과 코넬리우스 반틸의 계보와 보수 장로교 교의학의 교과서로 영향을 끼쳤던 루이스 벌코프의 교의학을 계승하는 신학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신학은 단연코 세계교회협의회를 종교다원주의적이며, 자유주의신학으로 단죄하면서 세계교회의 교회일치운동과는 절연한 채 옹고집스런 자기정당화의 신학 지형을 철옹성처럼 만들어 왔다. 이것은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김재준과 청교도 개혁주의를 수호하려했던, 그러나 근본주의 신학자였던 박형룡 사이의 냉전적 신학대결이 빚어낸, 그야말로 한국개혁주의 신학의 왜소화된 기형적 자리매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보수 장로교신학 진영에서 카이퍼리안 신학을 축자영감설과 예정론, 장로교교회정치,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와 같은 선별된 교리조항으로 제한시킴으로써 배타신학적이면서 축소지향적인 성격의 교리주의적 칼빈주의로 와전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카이퍼리안 신학은 이미 세계개혁신학의 지평에서 에큐메니칼신학과 공공신학적이면서 정치참여적 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극렬한 친카이퍼적 열광주의와 달리 칼빈과 장로교 전통에 서있는 다른 장로교신학 진영은 카이퍼리안 전통과 대화하거나 신학적인 토론을 제기한 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는 점은 이들 역시 반카이퍼 신학 진영논리에 매몰되었다고 평가된다.

## 2. 기독교정치관의 분류

- 1). 정치를 초월하거나 대립하는 복음(Gospel against Politics)
- 2). 정치와 긴장관계에 있는 복음(Gospel in Tension with Politics)
- 3). 정치위의 복음(Gospel above Politics)

1) 이 글의 내용은 교회 2.0 목회자운동 주관 기획포럼(2016.3.28.)에서 “리처드 마우의 카이퍼적 정치적 제자도”라는 강연에서 처음 생성되었으며, “사회적 칼빈주의와 한국교회의 사회적 공공성”이란 논문으로 기독교사회윤리 Vol.32 [2015], 147-185에 게재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4). 정치를 정당화하는 복음(Gospel baptizes Politics)
- 5). 정치를 변혁하는 복음(Gospel transforms Politics)

위 다섯가지의 복음과 정치의 관계유형에서 신칼빈주의 전통의 카이퍼리안 정치신학의 유형은 정치위의 복음(Gospel above Politics)과 정치를 변혁하는 복음(Gospel transforms Politics)에 걸쳐 있다. 반면, 재세례파 전통의 요더리안 정치신학은 정치를 초월하거나 대립하는 복음(Gospel against Politics)이나 정치와 긴장관계에 있는 복음(Gospel in Tension with Politics)고 연결되어 있다. 카이퍼리안과 요더리안은 복음과 정치의 관계에 있어서 상반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 I. 카이퍼리안 정치사상의 기본원리<sup>2)</sup>

### 카이퍼리안 정치신학 개요

카이퍼리안 정치신학의 뿌리는 네덜란드 신칼빈주의의 선도적 주창자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신학과 세계관, 그리고 그 정치관이 끼친 유산을 가리킨다. 카이퍼리안 전통과 유산이란 개혁신학자이며, 암스테르담 자유대학(Vrije Universiteit Amsterdam)의 설립자이며, 반혁명당(Anti Revolutionary Party)을 중심으로 수상을 역임했던 기독교정치인으로서 카이퍼 자신을 비롯하여, 카이퍼의 신학적 사고에 근거를 두고, 신칼빈주의 철학적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던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그리고 카이퍼의 신학을 교의학적으로 체계화시킨 헤르만 바빙크를 포함한다. 카이퍼리안 전통은 정치철학과 실천에 영향을 끼친 볼렌호렌도 포함된다.

-기독교세계관과 삶의 체계로서 카이퍼리안 신학

###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의 구현

카이퍼리안 사고에 따르면, 기독교(혹은 칼빈주의)는 개인구원이나 교회생활과 같은 종교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삶의 총체’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 곧 종교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삶의 체계로서 기독교(christianity as system of life)**<sup>3)</sup>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카이퍼리안 사상의 기본모토는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의 통치, 곧 다스림은 구속의 보편성과 연결된다.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므로 삶의 영역 전체도 구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안에서 학문과 신앙, 직업과 소명 등 삶 전체가 온전히 통합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성/속으로 나누는 이원론은 거부한다<sup>4)</sup>. “만물의 단 일인지라도 ”이 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카이퍼의 명구(名句)가 대표적이다. 기독교는 개인구원에 초점을 두는 사적 구원의 종교만이 아니라 생활 영역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구현하는 전포괄적인 차원을 추구한다. 교회와 국가, 종교와 정치는 기능적

2) 최용준,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 정신: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9(1), 158.

3)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크리스천다이제스트), 첫 장은 ‘삶의 체계로서 기독교’이다.

4) 이러한 그리스도 왕적 통치론이 본회퍼의 하나님의 현실과 세계현실이 그리스도현실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논리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숙고해야 한다.

으로 구분되지만, 그리스도 왕적 통치론적 사고에 의해 정치영역에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신한다.

카이퍼리안은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두어야 한다. 그것은 삶의 모든 차원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이퍼리안 사고에서 반정립(反定立 antithesis) 사고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이다. 모든 사물은 하나님이나, 우상이나를 향하고 있다. 모든 것은 종교적이다. 어떤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예술, 학문 등, 삶의 영역들은 중립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람의 인격과 내면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함으로 우상숭배를 향해 있든지, 종교적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삶의 영역들(구조들)은 종교적 근본동인에 의해 좌우된다.<sup>5)</sup> 심지어 불신앙적 학문조차도 신앙을 전제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학문과 그렇지 않는 학문사이에 대립이 존재한다. 그래서 두 개의 전혀 다른 학문의 유형이 생겨나고, 불신적 학문은 그것의 신학(무신론, 범신론, 유신론)과 세계관의 지배를 받게 된다.

## 2. 문화명령(Cultural Mandate)

모든 창조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선한 창조질서이며, 인간은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따라 계발, 발전하도록 문화명령을 부여받았다. 여기에는 정치도 포함된다. 문화의 진보와 발전은 '사회적 분화'와 '개현'(開顯)을 통해 진척된다.

## 3. 일반은총론

하나님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피조계의 더 심각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은총을 부여하여 죄를 억제하여, 역사와 문화의 진전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피조물의 잠재성을 구현하도록 비구속적 선물을 베푸신다.

카이퍼의 사고는 신자/불신자, 교회안과 교회 밖의 세상의 구역을 양분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속은총이라는 특별한총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사고하는 이유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 4. 창조-타락-구속: 만물 회복의 구속

### 1). 창조의 왜곡으로서 타락

**구조와 방향:** 만물은 총체적으로 타락했지만, 타락에 있어서 구조와 방향은 구분되어야 한다. 구조는 창조의 법칙 및 규범적 질서로 일반은총에 의해 여전히 보존되어 있으나 방향은 그 규범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든지 그 반대 방향을 향하든지 한다.

### 2). 창조의 회복으로서 구속

창조된 세계는 죄로 인해 타락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피조계가 총체적으로 부패하였으며, 왜곡되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를 회복한다. “성부가 창조하였으나 죄로 인해 파괴된 것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회복하여, 성령을 통해 하나님나라로 재창조된다”(H. Bavink)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영혼구원, 개인구원의 차원을 넘어 <구조의 구속>, <문화의 구속>, <정치의 구속>을 포괄한다. 구속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주적이며, 삶의 전영역에

5) 이 주제에 대해, 로이 클라우저,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흥병룡 옮김, 아바서원, 2017.

까지 포괄한다.

신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다음과 같은 구속을 말하고 있다.

“개혁주의 크리스천들은 타락에 대해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서도 대단히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만물이 선하게 창조되었고, 만물이 타락했다면, 만물이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육체’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개인적인 행동반경 이내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경영구조나 노동구조가 구속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면 그것도 구속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 관리체계가 돈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면 그것 역시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 부패한 모든 것, 타락한 모든 것은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기뻐하고 탄식하는 전체 자연계도 포함된다. 모든 영육의 고통가운데 있는 자연계 역시 살롬을 가져 오는 구속이 필요하다. 구속의 행위가 성스러운 지역에 한정된다고 이해하는 것처럼, 세상은 성스러운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전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전 세계는 타락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구속이 필요하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듯이 “단 한 뼨의 땅”까지 구속이 필요하다”<sup>6)</sup>.

#### - 정치적 성화, 일의 구속

카이퍼리안의 구속은 전피조물의 구속이요, 문화변혁의 구속이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한다(헤르만 바빙크).

### 5. 영역주권의 원리: 카이퍼적 정치이론의 요체

영역주권 원리는 자유대학 설립 시기(1880) 카이퍼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다. 카이퍼와 그 일행은 자유대학은 정부와 교회로부터 아무런 간섭과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즉 가정, 교회, 국가, 학교에 각각 고유한 법칙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학문분야도 고유한 삶의 법칙을 가진 영역이 형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모든 영역은 모두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라는 모토가 형성되었다.

창조의 모든 영역(교회, 국가, 가정, 기업 등)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각각 고유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영역도 다른 영역에 주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피조세계의 각 영역에는 고유한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이 부여되었다.

a). 국가와 사회와 교회의 각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고유한 질서로 주어져 있다.

각각의 영역은 고유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피조물의 주권은 자충족적 주권이 아니라 파생적 주권이다.

b).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지향함으로써 신학적 일원성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인민주권론이나 국가주권론과 같은 모더니티적 절대주권론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다른 한편으로 각 영역의 고유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 사회의 다원성을 열러놓는 다원주의 사회론의 틀이다. 영역주권론은 하나님의 일원론적 주권이 삶의 영역의 주권의 다원성을 동시에 연결해 주는 정치론이다(이국운, 138).

6) Cornelius Plantinga Jr., *Engaging God's World*, 오광만 역, 기독교지성의 책임, 159.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악한 인간들사이에 존재하는 절대주권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피조물은 각기 고유한 주권을 가진 별개의 영역으로 삶을 구분함으로써 그 모든 절대주권에 대해 도전한다”(카이퍼)

- 경제, 예술, 학문, 노동 등의 사회의 각 영역은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며, 각각은 하나님의 법이 규범적으로 주어져 있다.

-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법이 위반되고 각 영역안에서 억압이 발생하며 영역들간의 경계가 혼란스러워진다.

- 이 때 국가는 일반은총의 도구로서 다른 영역과 충돌이 생길 때, 각자의 상호 경계선을 강제해 주고, 국가의 일치를 위해 부담을 지우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국가는 거기까지만 역할이 주어져 있으며, 진리나 구원과 같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 문제는 특은총의 통로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주권이며, 각 영역은 다른 영역의 권리나 자유를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법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영역주권에 위배된다.

그러나 각각의 양상들은 독립된 법칙 영역들로서 그 고유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주권에 의해 지배받을 수 없다.

### 1). 피조물의 양상구조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후에도 이 세계질서의 유지에 관계하며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각 창조물에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는 양상 혹은 법칙영역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우주의 양상 혹은 법칙영역은 최저단계에서 최고단계까지 1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수적 양상, 공간적 양상, 운동적 양상, 물리적 양상, 생명적 양상, 심리적 양상, 분석적 양상, 역사적 양상, 언어적 양상, 사회적 양상, 미적 양상, 법적 양상, 윤리적 양상, 신앙적 양상.

수적 양상에서 심리적 양상까지는 하나님이 그 법칙을 직접 통치하시므로 인간이 어길 수 없다. 분석적 양상 이후부터는 극 법칙이 인간을 통해서 시행되므로 어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양상들은 신앙적 동인에 의해 (아르키메데스적 기점起點이) 결정된다. 어떤 것도 중립적일 수 없으며, 자충족적일 수 없다.

불신앙적 학문조차도 신앙을 전제한다.

### 3). 영역주권론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율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영역주권사상은 다원주의를 전제한다. 이 사상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수단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카이퍼는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의 집단주의를 반대하면서, “창조계의 유기적 영역들”(organic spheres of creation)을 표방했다. 사회 각 영역의 절대 독립이나 절대 자율성, 절대주권이 아니라 사회제 영역들간의 유기적인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7).

4). 교회론과 정치: 유기적 교회와 제도적 교회

제도적 교회: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중생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곳이다.

유기체로서 교회: 보다 광범위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카이퍼는 교회의 다원성을 역설한다.

- 진보적 발전법칙: 19세기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신약시대의 교회는 통일체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자남에 따라 분리의 과정을 통과하여 다양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 교회를 포함한 모든 유기체는 다변화의 법칙에 종속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의하면 다양성이야말로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이다.
- 애통의 시기 이후부터 카이퍼는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가 가시적이 되는 <제도적 교회>와 별개로 인간이 제도적 형태를 통해 가시화되는 교회의 형태를 유기체적 교회라고 한다. 유기체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나타나는 다른 형태를 말한다.
- 카이퍼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대인데, 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마음, 가족, 비즈니스, 산업, 학문, 예술 등은 제도적 교회보다 더 크고 영적인 교회에 의해 그 전투가 치러져야 한다.
- 제도적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교회를 ‘현상적 교회’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영역(개인, 가정, 국가)에서 거듭난 형태로 나타나는 교회이다.

6. 카이퍼 전통의 변혁적 정치신학을 위한 신학적 구상

칼빈주의 신학이 갖는 뛰어난 강점이자 특징으로서 하나님 주권 신학,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 칭의와 함께 성화론적 구원론,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 세계형성적 기독교로서 신학을 사회적 공공성의 차원으로 결합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1). 세계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칼빈주의 신학의 근본방향은 ‘세계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강조에 있다. 칼빈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권과 통치의 신학’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영역은 경건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이 강조하는 ‘구속된 신자의 내적 경건’이나 ‘영적인 평안을 갈구하는 내면 질서’만이 아니며, 실존주의 신학에서 발견되는 비본래적 자아로 살아가는 비존재의 위협아래 처한 불안한 실존(볼트만, 틸리히)도 아니라, 삶의 총체(카이퍼)<sup>8)</sup>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구현은 개인구원이나 교회 공동체라는 종교적인 구역에 머물지 않고 인간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창조 현실 전체를 포괄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되심의 영역은 결혼(가정), 국가(정치), 노동(경제)을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 있다.

7) 원종홍, 국가와 교회의 영역주권에 관한 연구, 165.

8) A. Kuyper, 『칼빈주의 강연』, 33. 카이퍼는 루터교는 ‘교회적 신학’이라는 특성에 국한되지만, 칼빈주의는 교회를 넘어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며, 그런 점에서 칼빈주의는 ‘인간의 삶의 세계 전체를 형성하는 종교’임을 강조한다.

## 2). 죄와 구속의 사회적이며 공적 차원

죄의 기원만을 주목하는 원죄론적 죄는 죄를 추상적이며 실체론적으로만 바라보게 한다. 따라서 죄의 역사적인 실재, 죄의 사회적인 양상, 문화와 문명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 악마적인 사회-문화적 관습으로서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사회의 전통과 질서, 제도, 체제안에 불공정, 불평등, 착취, 억압의 시스템으로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행동방식에 널리 퍼져있는 죄를 파악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는 죄스러운 구조이다. 그러므로 '구조악으로서 죄', 혹은 '사회악으로서 죄', 또는 '역사적 실재로서 죄'의 양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근거하여 기독교의 구속론을 설명할 때, 택자 구원론이나 제한 속죄론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이 택자 구원론과 제한 속죄론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구속의 대상과 범위를 택한 받은 신자에게 한정함으로써 '문화의 구속', 혹은 '정치의 구속', '사회적 성화', 그리고 '만물의 회복과 갱신으로서 구속'을 포함하는 구원의 총체성과 전체성을 놓치는 협소한 구원론에 머물 수 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차원의 분리와 단절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간의 수평적 차원의 왜곡, 즉 전인격의 파탄 상태를 초래하였고, 궁극적으로는 피조물 전체를 악한 상태로 빠뜨렸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개인의 구속과 교회를 향한 신자들의 구속을 넘어서 정사와 권세들, 곧악한 구조와 관습과 제도, 문화들과 이념과 질서들까지 구속의 효과가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구원이란 단지 인격 차원의 죄용서, 칭의, 중생만이 아니라 초인격적인 구조의 구속과 만물의 회복과 새 창조로서 구속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르멘신학선언서(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에서 칭의와 성화론에 의한 구속의 차원을 정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르멘선언서가 칭의와 성화의 영역을 정치영역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표명한 것은 구속의 사회-정치적 함의를 카이퍼적으로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교회의 정치적 선교: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속에 구현하는 총체적 복음화

교회의 존재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속에 구현하는 것에 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속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구이며 명령으로, 먼저 죄인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회심이며, 이웃과의 불의한 삶의 질서로부터의 회심, 즉 방향전환인데, 그것은 이웃과의 증오와 불화(마5:21-24)와 이기심과 폭력을 추종하는 삶(눅3:11-14)과 탐욕을 쫓는 불의한 경제질서(마6:19-20; 눅18:22, 19:8-9; 약5:1-6)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삶의 총체적인 방향전환인 회심을 요구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복음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옛 삶의 질서로부터 새로운 삶의 질서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격적으로 수납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의 수립과 관행과 제도, 사회 질서, 그리고 경제적인 구조악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수행된 그리스도의 복음화 사역은 인격적인 차원이나, 사회-경제적 관계의 방향전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육체적인 질병과 악마에 사로잡힌 현실까지 포함하는 신체의 건강회복과 악령의 추방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는 인격 차원의 죄인과 복지의 결핍으로서 육체적 질병과 일그러진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총체적이며 공적인 선교인 것이다. 칼빈주의가 모든 삶의 영역과 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면, 복음화를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개인구원에 국한될 수 없으며, 구조악의 구속과 정치의 구속<sup>9)</sup>, 그리고 경제질서의 구속과 문화의 구속, 그리고 자연 생태계의 구속까지 포괄하는 공적 선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과제는 '세상을 향한 봉사'이다. 세상에서 수행되는 교회의 봉사는 복음의 증언이 되는 것으로, 구두적 선포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봉사'이며, 선포된 말씀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사회적 봉사'(diakonia)가 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봉사는 구제와 돌봄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와 구조악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참여와 사회변혁을 포함하는 사회행동(social action)이 있다. 다시 말해 세상속에서 교회의 증거는 복음을 말로 증거하는 것(Saying the Witness)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Doing the Witness)과 존재로서 증거하는 것(Being the Witness)이 있으며, 이것은 모두 사회속의 교회의 공적 봉사가 된다.

## II. 카이퍼적 기독교정치에 대한 비판과 평가

### 1. 카이퍼의 정치의 역사

1). 역사적 배경: 반혁명당(Anti Revolutionary Party)에서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Appeal CDA)

### 2). 정치적 노선과 전략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카이퍼의 정치노선

“자유주의자들은 카이퍼를 미워했고, 사회주의자들은 카이퍼를 공공연한 적으로 간주했다”<sup>10)</sup>.

“카이퍼의 영향력으로 보수주의가 승리하고, 자유주의는 좌절되었으며, 사회주의는 억제되었다”<sup>11)</sup>.

### 2. 카이퍼 해석에 대한 비판적 평가

#### 1). 정치의 구속은 어떻게 가능한가?

정치적 변혁의 낙관성: 그렇게 낙관적인가? 죄의 초인격적인 힘은 마성적으로 우리 현실의 성향, 가치관, 생활방식, 구조안에 휘감아 있지 않는가?

#### 2). 분화와 개현: 19세기 역사낙관적 진보사관이 짙게 깃들여 있는 사상은 아닌가?

카이퍼 사상에 제자도의 신학이 필요하다.

- 우주론적인 원리주의와 승리주의 신학의 위험: 예정론, 언약신학, 성도의 견인
- 죄와 은혜, 구원과 비구원, 하나님과 악마사이의 갈등과 치열한 투쟁적 면모가 희박함
- 죄 많은 세상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추종할 것인가, 하나님과 악마사이에 끼어 갈등하는 인간의 진솔한 자기고백이 없다.

9) 정치의 구속에 대해, 민종기, 『한국정치신학과 정치윤리』 (서울: KIATS, 2012), 35-41.

10) 루이스 프람스마, 왕을 위하여, 이상웅·김상래 역, 복있는사람, 316.

11) 루이스 프람스마, 왕을 위하여, 363.

- 그리스도 왕적 통치론이란 명제처럼 죄스런 이 세상에서 이미 천상의 승리의 나팔을 불어대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향해 미래를 향해 흔들림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전적인 승리를 낙관하는 신학적 시스템.

- 카이퍼적 사고의 '기독교 승리주의 정신'에 대한 경계: "그리스도께서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을 소유하고 계신 이상 우리의 사명은 앞으로 전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일이다"와 같은 정복주의 사고를 '제국주의적 제자도'라고 비판한다(마우)<sup>12)</sup>.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천상적 승리주의 신학보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면서 저 악마적이며, 무신적 권세에 저항하는 지상적인 십자가신학, 파토스적 신학,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신학은 제자도의 신학, 다시 말해 그리스도 뒤따름의 윤리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세계현실과 투쟁해야 하는 역동성을 담아내지 못한다. 죄와 구원, 은총과 자연,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양극단에서 부단한 뒤따름의 투쟁을 불러오는 사회적 제자도의 윤리가 필요하다. 제자도의 신학은 거대한 우주론적 신학의 체계아래 신자 개인이 치러야 하는 치열한 투쟁적인 삶이 매몰되는 듯한 논리의 신학이나 원리주의 신학도 아니라 개개인의 부단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려는 인격적 신학이자 실천의 신학이 필요한 것이다.<sup>13)</sup>

- 정치적 제자도(political discipleship)는 복음전도, 교회설립, 교회봉사에 초점을 둔 '교회내적 제자도'<sup>14)</sup>와는 달리 창조주 주어진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속에서 교회가 수행되는 '교회 외적 제자도'의 하나로서 그것은 일반은총에 의해 국가안에서 법질서를 세우고, 사회정의 증진하여 살롬의 사회를 조성하면서 교회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sup>15)</sup>.

### 3). 카이퍼 정치신학, 신정정치인가 세속정치인가?

카이퍼는 정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되어야 하지만, 신정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왕이신, 353).

- 카이퍼 정치신학은 변혁주의인가? 현실주의 정치
- 현실주의 정치실천은 불가피하다. 정치이상이가 아니라 정치적 이성이 필요하다.

### 4). 카이퍼 정치신학의 오독(誤讀)을 경계하자.

12) R. Mouw, 『무례한 기독교』, 193-204. "다같이 나가서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정치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들의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자!"

13) 그런 맥락에서 신칼빈주의자 리처드 마우는 비록 주류 개혁파에 속한 신학자이지만, 개혁파에 대한 아나뱃티즘의 콘스탄틴주의적 승리주의에 대한 비판에 경청하며 부단히 그들과 대화한다. 김동춘, 『사회적 책임의 신학』, 52-53.

14) 복음주의 관점의 제자도 개념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모방(imitatio Christi)과 관련하여 인격적 제자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결과는 반드시 생활양식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새롭게 시작한 그들이 삶이 일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M. J. Wilkins, *Following the Master: Discipleship in the Steps of Jesus*, 황영철 역, 『제자도 신학』(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536.

15) 민중기는 정치적 제자도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주로 '카이퍼리안 신칼빈주의'(Kuyperian Neo-Calvinism)의 전통에 서있는 리처드 마우의 '정치적 복음전도'에서 찾는다. 그는 정치적 제자도를 '정치선교', 혹은 '정치의 구속'의 개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민중기, 『한국정치신학과 정치윤리』, 111-130. R. J. Mouw, *Political Evangelism*. (Grand Rapids: Eerdmans, 1973), 이정석 역, 『그리스도인과 정치』(서울: 나비, 1989). 신칼빈주의적 관점의 정치신학에 대한 마우의 신학적 사고에 대해, *Politics and Biblical Drama*, (Grand Rapids: Eerdmans, 1976).

- 보수 칼빈주의 진영은 카이퍼를 거의 영웅서사로 신화화되어 과잉포장되고 있고, 다른 진영에서는 '축소화'되고 있다<sup>16)</sup>.
- 오늘의 카이퍼는 에큐메니칼적, 정치신학적, 공공신학의 중심이다.
- 프린스턴신학교의 Abraham Kuyper Center for Public Theology

### III. 카이퍼리안 사상의 정치윤리적 전개

#### 1. 기독교정치윤리의 유형

정치성향	특징	유형들		내용
극우정치	신정주의		기독교당, 성시화운동, 김진홍, 도덕적 다수(Jerry Falwell, Pat Robertson)	정치화된 근본주의 기독교. 기독교정치세력화를 통해 기독교국가건설. 신정정치를 현실국가안에 문자 그대로 구현하여 기독교 왕국을 꿈꾼다. 반공, 친미자본주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중도우파	현실주의	두왕국론	Lutheran	
		로잔운동	J.Stott, R.Sider R. Padilla	복음전도와 사회-정치적 책임은 교회의 두 의무이다. 그러나 개인전도에 기초한 총체적 복음주의
중도좌파	현실 변혁주의	칼빈주의	신칼빈주의 (Kuyper, Mouw), 기독교세계관운동, Barth, Moltmann	삶의 전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실현, 일반은총과 영역주권론
		공동선	가톨릭 정치론	私의善이 아닌 公共善으로 인간의 사회적 삶을 위한 공동의 필요와 조건들의 충족에 집중하는 정치
급진좌파	구조 변혁주의 (급진정치)	해방신학	종교사회주의 (L.Ragaz, H.Kutter) 사회복음신학 (W.Rauschenbusch)	하나님나라는 mammon화된 자본주의에 역행하며,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복음은 사회적이다. 하나님나라는 구조악의 죄라는 악의 왕국과 거슬러 현실사회속에 내재한다.
			남미해방신학 (Gutierrez, Sobrino) 남아공해방신학 (Boesak, de Gruchy) 민중신학	하나님나라는 가난한 자, 흑인, 민중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그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당파적인 것이다.
급진변혁	비타협적 대안주의	재세레파	H.Yoder, S.Hauerwas	교회와 국가는 대립/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 그 자체가 정치적이다. 기독교정치는 사회와 전적으로 구별된 교회(대조사회로서 교회됨)를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16) 이국운,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 영역주권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3), (2013), 128.

극우	배타적 교회주의	McKnight, K.Schilder, Van Drunen	가능하다. 그리스도는 구속된 교회에서만 통치하실 뿐 세상과 정치 등 일반영역은 죄로 타락 한 영역이다(反일반은총). 교회는 세상의 구속활동만을 부여받았다.
----	-------------	--	--

## 2. 카이퍼리안 사상에 따른 한국개신교 정치윤리

### 1. 비정치적 카이퍼리안 신학: 카이퍼리안 신학은 왜 비정치화되었는가?

한국 개신교에서 카이퍼리안 신학은 주로 보수 장로교 신학(고신, 총신, 합신)에서 수용되었다. 따라서 카이퍼리안 신학이 한국개신교의 정치신학과 정치윤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는 이 교파신학의 범위안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될 수 밖에 없다. 카이퍼리안 사상의 신학적 범주는 칼빈주의 속한다. 그런데 카이퍼리안의 신학적 토대인 칼빈주의는 단일한 형태의 칼빈주의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강조점을 지닌 칼빈주의들(plural calvinisms)**<sup>17)</sup>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장로교가 수용한 칼빈주의는 세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교리를 강조하는 칼빈주의, 경건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문화변혁주의 칼빈주의였다. 그 가운데 **교리적 칼빈주의와 문화변혁적 칼빈주의**가 주된 흐름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그런데 한국개신교에서 두드러지게 칼빈주의 유산을 강조했던 위 두 그룹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의 정치참여에 거리를 두었으며 기독교정치신학에 대한 정립이나 논의를 꺼려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정치가로서 칼빈주의 사상을 토대로 현실정치에 깊이 개입하여 칼빈주의와 정치를 연결하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와 달리 **카이퍼를 계승하고자 했던 한국의 칼빈주의자들은 한번도 정치신학적 목소리를 제대로 발설한 적이 없었다.**

카이퍼리안 전통의 신학과 교회, 그리고 그 전통을 계승하는 운동단체가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취했던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 1). 교리적 칼빈주의에서 카이퍼리안 신학의 비정치화

한국장로교내에 예정론, 언약신학, 성경영감과 무오, 형벌대속론,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강조하는 **‘교리주의적 칼빈주의’(dogmatic calvinism)**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일반은총, 문화명령, 창조신학, 구조약의 타락, 그리스도안에서 만물의 회복과 갱신으로서 구원, 영역주권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통치의 삶을 강조하는 **문화변혁적 칼빈주의(culture-transformative calvinism)**가 있다. 이 두 종류의 칼빈주의에 대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자 한다.

“예컨대 교리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보다 더 강조함으로써 문화변혁적 칼빈주의자들처럼 일반은총에 근거한 인간의 문화명령의 수행 가능성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교리주의자들은 예정론과 제한속죄에 초점을 두어 택자와 불택자의 영원한 구원과 멸망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문화변혁주의자들은 만인구원론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안에서 구원의 총체성을 강조함으로써, 구원이란 개인의 영혼구

17) G. Marsden, "Introduction: Reformed and American", in D. F. Wells(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Grand Rapids: Baker Books, 1997), 3.

18) 이 내용은 김동춘, 세계형성적 칼빈주의: 사회속에서 개혁신학의 공공성을 위한, 국제신학 17권 (2015), 102-111에서 정리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과 육체의 구원이며, 인격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구조악의 구원’이면서 ‘문화의 구속’이며, ‘사회적 성화로서 구원’이며, ‘만물의 회복으로서의 구원’의 측면을 강조한다. 즉 구원에 있어서 개인구원이나 인간 영혼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우주적이며 삶의 총체로서 구원에 주목한다. 종말론에 있어서도 교리주의자들은 세계멸절설(annihilatio mundi)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문화변혁주의자들은 세계변형설(transformatio mundi)로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문화적 성취를 단절이 아닌 연속성으로 이해한다”.<sup>19)</sup>

교리적 칼빈주의자들은 카이퍼리안 신학안에 빠어난 정치신학적 유산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거나 설사 정치신학적 유산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유의미성을 외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카이퍼리안 신학사상을 정통개혁신학 혹은 보수신학의 근거점으로 접근했던 그들은 카이퍼리안 신학과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리고 영국 청교도 신학과 북미 근본주의 성향의 개혁신학과의 예리하면서도 분명한 강조점의 차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이 모든 신학을 보수신학 혹은 칼빈주의라는 하나의 우산아래 일체화시키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교리적 칼빈주의자들은 카이퍼리안 신학을 자신들의 신학적 정통성을 증빙하는 증거 자료로 사용하려 할 뿐<sup>20)</sup>, 정치참여, 혹은 정치신학과 정치윤리까지 신학적으로 논의될만한 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들에게 참된 신학이란 정통교리(orthodox)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통실천(orthopraxis)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의 제일과제는 정통교리를 변증, 계승하는 것이었을뿐, 톨리히의 상관관계의 방법론처럼 인간상황이 제기하는 현실의 질문에 ‘응답하는 신학’이 아니었다. 또한 네덜란드 개혁파신학을 수용하던 70년대는 ‘정치참여적 에큐메니칼 진영’과 ‘정교분리를 보수신학의 기치로 내걸고 소위 그들의 관점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극렬한 신학적 대결을 진리수호의 길이라고 확신했던 냉전신학의 시대였으므로, 교회의 정치참여와 신학의 정치신학적 사고란 거의 선택불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더구나 정치신학과 교회의 정치적 책임 문제와 인접한 신학은 주로 세속화신학, 신 죽음의 신학, 하나님의 선교론(missio Dei), 혁명의 신학, 그리고 해방신학과 민중신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그러한 신학과 동일시되었으므로 보수 정통신학, 청교도 개혁신학의 교리적 전통을 수호하고 방어하는데 신학적 과제를 붙들었던 그들에게는 카이퍼리안 사상을 정치신학과 정치윤리와 연결점을 거의 갖지 못했다. 설사 카이퍼리안 사상에 정치신학과 정치윤리적 유산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통 개혁주의와 청교도 개혁신학에 갇혔었던 보수신학 그룹에게 정치신학 혹은 정치윤리가 함축하고 있는 주제들인 사회정의, 평등, 인권, 평화, 인간화같은 개념들은 반공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위험한 좌경 용공신학을 의미하였으므로 매우 민감한 거부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었다.

## 2). 문화변혁적 칼빈주의에서 카이퍼리안 신학의 비정치화

교리적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 사상의 특징을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사상, 제한속죄론, 형벌대속론, 장로교 교회정치로 제한시키려 했다면, 칼빈주의를 세계형성적이며, 문화변혁적 관점에서 파악하도록 가교역할과 촉매역할을 했던 그룹은 보수신학교의 강단신학자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학적 쟁점에서 자유로운 철학과 인문학 전공학자들에 의해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전파되었다.

교리적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카이퍼리안 사상의 세계형성적이며, 문화변혁적 특징은 말소되고, 몇 개의 선별된 교리적 특징으로 간주되었다면, 문화변혁적 칼빈주의는 적어도 카이퍼리

19) 김동춘, 세계형성적 칼빈주의, 106.

20) 바빙크의 개혁교의학도 기존의 정통주의 신학의

안 신학과 사상을 다양하게 풀어 내주었다. 이 성격의 카이퍼 사상은 주로 기독교세계관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주로 성숙 이원론이나 신앙과 삶, 교회와 세상의 이원론 사고 극복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 사용되거나, “세계관은 삶이다”라는 모토 아래 신앙과 삶, 일상과 신앙을 통합하는 생활운동의 측면에서 이해되었다. 또는 기독교세계관은 다양한 세속학문 영역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논리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이 세계관운동은 문화변혁의 논리로 사용되면서 예술(영화)과 노동, 직업(소명), 일터의 영역과 연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세운동은 결코 정치참여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기세운동은 비정치화되었는가?

첫째, 문화변혁적 칼빈주의자들은 카이퍼 사상을 문화, 학문, 일상이라는 제한적 영역에 국한시켰다. 카이퍼가 행했던 ‘칼빈주의 강연’(Lectures on Calvinism)은 칼빈주의와 정치를 분명히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과 일상, 신앙과 예술, 신앙과 과학, 신앙과 직업, 그리고 문화명령 등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활동이라는 차원에서만 다루고, 정치 문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변혁적 칼빈주의자들의 모토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구현하는 것’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복음과 학문의 통합에 대해, 그리고 영화, 음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리하거나 소명으로서 직업에 대한 사고 전환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유독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인색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과 삶의 영역 예를 들어 기세의 교과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혼구원이나 개인적 구속에 그치지 않고, 영혼과 육체의 구원, 인간과 자연의 구원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원이며, 우주적 구속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 총체적이며 우주적 구원의 영역에 ‘사회적 구원’이나 ‘정치적 구원’이라는 표현은 그리 쉽게 등장하지 않는다.(플랜팅가의 저서, 마우: 정치선교..)

더구나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전략으로서 정직운동, 검소한 삶 등 개인적 도덕운동의 차원에 머물고 있고, 사회 구조악의 철폐를 위한 정치적 항거나 명시적인 정치참여에 소극적이다. 그런 점에서 기세의 정치윤리는 ‘정치적 최소주의’ 경향이 농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21)</sup>.

정치신학과 정치윤리에 있어 그 이유는 기세운동은 현실사회의 구조를 분석, 판단하는 사회과학적 사고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연결하기 위한 이론서적을 번역하고 학습하는 훈련과정도 있지만<sup>22)</sup>, 한국사회의 인권 현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성의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일터신학 역시 기독교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있다. 교회생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주님이다. 그래서 일터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진단하는 정도에서 멈추고 있을 뿐, 한국사회의 비정규직문제, 양극화 문제는 다루지 못한다. 북미에서 소개된 일터신학은 일터에서 주님의 주권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멈추고 만다.

결론적으로 교리적 칼빈주의와 문화변혁적 칼빈주의는 카이퍼리안 신학의 비정치화에 결정

21) 한국기세운동의 주도적인 인물인 손봉호교수는 기세운동을 기독교정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국현안마다 광장의 정치적 표현 등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여주었고, 공명선거 감시운동 등에 그치고 있다.

22) 기독교법률가회(CLF, Christian Law Fellowship)에서 발행한 소명..법, 그리스도와 법 등이 있다.

적으로 기여했다. 그들은 카이퍼리안 신학을 정통중주의 신학을 변호할 도구로서 교의학적 차원에서 수용하거나 학문, 삶의 영역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만 취급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카이퍼리안 신학의 수용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신학적 성향이 이미 보수신학으로 경도되어 있었으며, 기독교정치신학은 보수신학이나 개혁주의신학과 무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2. 정치적 카이퍼리안 신학: 카이퍼리안 신학은 어떻게 보수 우파적 정치이념으로 변모했는가?

카이퍼리안 신학과 사상을 계승해 오던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그룹과 온건한 기독교세계관주의자들에게서 예전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뚜렷한 정치참여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들의 정치참여란 사회개혁적 정치참여가 아니라 보수 우파적 정치참여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개신교내에 거대한 지형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중 하나는 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관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수교단 혹은 근본주의 그룹의 기독교 진영의 정치참여의 입장은 정교분리에서 종교권력으로 이동한 것을 관찰하게 된다.

한국개신교에서 보수 교파와 그룹과 온건 보수주의 그룹이 해방신학과 실험

- 성시화 운동
- 기독교당
- 기독교세계관 그룹의 분리

세속주의적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스캇 맥나이트의 비판

## IV. 카이퍼리안 신학의 정치신학의 가능성

카이퍼의 정치신학은 칼빈, 칼빈주의, 종교사회주의, 사회복음의 신학, 해방신학 등과 사상적으로 연결점을 지니고 있다. 그의 신학을 창조적으로 재발견하여 결합한다면, 21세기를 위한 정치신학으로 제시될 수 있다.

- 네덜란드와 북미의 카이퍼리안 전통에서 문화변혁적 신칼빈주의(A. Kuyper, H. Bavinck, R. Mouw, N. Wolterstorff, R. Middleton)
- 남아공 인종차별 상황에서는 해방신학과 개혁신학이 결합함으로써 사회변혁적 성격의 칼빈주의로 나타났으며(de Gruchy, A. Boesak<sup>23</sup>)
- 독일과 스위스 개혁파 전통에서 그리스도 왕적 통치론에 기초한 정치신학(바르트, 바르멘신학선언, Ragaz<sup>24</sup>)

---

23) 알락 보삭은 남아공 인종차별 상황에서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칼빈주의 신학을 시도한다. 그의 책은 의미심장하게도 *Black and Reformed: Apartheid, Liberation and the Calvinist Tradition*(흑인과 개혁주의: 인종차별, 해방, 그리고 칼빈주의 전통)이다. 보삭은 이미 네덜란드 캄펜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Farewell to Innocence: A Socio-Ethical Study Black Theology and Black Power*(순진함이어 안녕: 흑인신학과 흑인 파워의 사회 윤리적 연구)을 연구한 바 있다.

24) 종교사회주의는 독일 남부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Christopher Blumhardt) 부자(父子)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예수는 승리자다”이며, “하나님나라는 오고 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모두 그의 것이다”

- 최근 개혁신학에 근거한 공공신학적 정치신학(M. Stackhouse<sup>25</sup>), Vince Bacote<sup>26</sup>)
- 총체적 복음화를 지향하는 선교신학적 담론(Chr. Wright)
- 철저 제자도 전통의 아나뱃티즘의 정치신학(J. H. Yoder)

### 1). 카이퍼 정치신학은 칼빈의 정치신학과 맥을 같이 한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개인의 경건한 삶뿐 아니라 삶의 전영역에 미친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면 종교의 구획과 세속의 구획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sup>27)</sup> 세계가 두 영역, 즉 하나는 종교적 영역,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세계현실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응답하는 책임있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 2). 카이퍼 정치신학은 칼 바르트의 그리스도 주권론적 정치신학과 맞닿아 있다.

바르멘신학선언(1934년)은 히틀러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의 유일 주권론을 천명했다. 선언서 테제2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 우리의 전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에게 속하여 있는 영역,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바르멘선언서는 (카이퍼의 모토와 마찬가지로)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나 그것으로부터 제외된 영역은 없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와 모든 권세와 인간의 모든 삶의 주님이시며, 영적, 사회적, 정치적 전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바르트의 그리스도 주권론은 어떤 신학적 착상에 근거하는가?

**보편 화해론:** 전세계는 이미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아래 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사이의 투쟁은 없으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현실에 대하여 승리하셨다. 모든 인간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안에서 화해되었다.

**보편 기독교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치받도록 부여받았다. 그리스도는 우주

---

라는 모토로 ‘온 세상위에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스위스 종교사회주의자 라가츠(Leonhard Ragaz)에게 이어진 것으로 신학적 근거를 개혁파 전통의 그리스도 왕적 통치론에 근거하고 있다. 라가츠는 칼빈처럼 인간 타락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자본주의 사회에 구조적으로 물들어 있음을 설파하면서, 악마화된 현실세계위에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 즉 하나님나라의 주권적 통치를 원리적인 사회주의에 임해야 할 것을 역설하면서 기독교 복음에 기초한 사회형성을 제시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을 전개하였다.

25) 맥스 스택하우스는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공공신학을 소개하고, 발전시킨 학자이다. 그는 공공신학을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핵심주제인 ‘언약신학’(247-268) ‘타락론’(‘은총에 대한 반역’ 223-233, ‘타락의 세계화’, 350-355), ‘하나님의 형상론’(213-222),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298-303)에 근거하기도 하고, 문화변혁적 칼빈주의 사상의 중요한 주제인 ‘문화명령’(206-222)과 ‘사회적 회심’(313-320), ‘성화론’(336-340) 등에 근거하여 공공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맥스 스택하우스, 세계화와 은총: 글로벌 시대의 공공신학, 이상훈 역, (서울: 북코리아, 2013).

26) Bacote은 미국 휘튼대학의 기독교윤리교수와 Center for Applied Christian Ethics의 디렉터로 카이퍼 신학에 근거한 공공신학을 펼치고 있다. *The Spirit in Public Theology: Appropriating the Legacy of Abraham Kuyper*(2005). 이 책에서 그는 카이퍼 사상에 근거하여 문화소명과 문화명령에 응답하는 ‘창조 청지기직’(Creation Stewardship)을 제시한다. *On Kuyper*(2013).

27) 카이퍼의 명구는 이와 거의 유사하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인간의 삶에서 한 치도 없다.”

적 통치자(pantocrator)이다. 국가는 본래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국가 역시 그리스도인의 죄인의 칭의와 성화에 봉사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위한 신학적 기초이다.

**기독교론적 정치윤리:**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실체이며 주권의 형식이다. 그런 면에서 현실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의 미완성의 형식이며,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나라를 지향한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뒤따르는 제자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자신의 책임성을 인식한다.

### **교회와 국가: 유비와 상응**

국가는 세속 질서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도 신적 질서의 은총이다. 시민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안에서 혼돈에서 보존하신다는 표적이다. 국가는 **교회밖에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나라가 될 수도 없다. 그러나 국가는 하나님나라의 약속아래 있다. 교회와 국가는 동일시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다른 것만은 아니다(상이성). 국가는 하나님나라에 응답하는 실체로서 그것의 **비/유와 유비**이다. 국가는 그리스도 공동체 외부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외형적이고 잠정적인 행위속에서 구현하고자 한다. 국가는 하나님의 외적, 지상적, 잠정적인 도구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하나님나라의 비유로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는 하나님나라를 지상에 가시화시키기 위한 하나님나라의 유비이다.

**3). 카이퍼 정치신학은 일반은총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제자도를 추구하는 리처드 마우에게 계승되고 있다.** 카이퍼 전통을 기반으로 신칼빈주의 사상을 대중적이며, 신학적으로 가장 명료하게 풀어내는 사람은 리처드 마우이다. 그는 죄를 정치의 타락에서도 발견하면서, 개인과 인격의 구속을 넘어 정치영역도 구속이 필요한 만큼 정치 전도(political evangelism), 즉 정치선교를 말하였고, 그래서 정치적 제자도(political discipleship)를 역설한다. 또한 그는 이를 ‘문화적 제자도’(cultural discipleship)<sup>28)</sup>로 더 확장하여 전개한다. 마우는 복음주의자들의 독선적 신앙의 무례함을 넘어서기 위해 다원주의 사회에서 불신자에게도 주어진 일반은총의 혜택을 의식하면서 그들과 일반성을 공유하면서 시민교양의 기독교로 가야 함을 역설한다. 따라서 마우에게는 카이퍼적 정치적, 사회적 비전이 있지만,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칼빈주의 신앙이 관용을 보여주며, 공적 영역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4). 카이퍼 정치신학은 현세적 만물회복과 갱신을 향한 총체적 구원과 변혁적 종말론적 성경 내러티브(R. Middleton)<sup>29)</sup>와도 연결된다.**

미들튼의 사상적 배경은 카이퍼리안적이면서 웨슬리안(Kuyperian-Wesleyan) 전통에 서 있으나, 특징적으로는 신칼빈주의의 카이퍼리안 전통에 기반하여 창조-타락-구속의 틀로 성경

28) R. J. Mouw, *The Challenges of Cultural Discipleship: Essays in the Line of Abraham Kuyper*, (Grand Rapids: Eerdmans, 2012). 이 책에 카이퍼의 여러 핵심 사고들에 대한 글이 담겨 있다.

29) R. Middleton,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Grand Rapids: Baker, 2014), 미들튼은 성경 드라마를 신칼빈주의의 기독교세계관의 문화변혁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는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와 연계된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성경해석학 분야로 학위를 마쳤으며, 현재 Northeastern Seminary에서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해석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전체 줄거리를 문화변혁과 만물 갱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미들턴은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구원이란 플라톤주의적 이원론처럼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영혼의 구원’이나 ‘세상으로부터의 탈출’하는, 즉 ‘죽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나 땅에서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들턴은 “성경은 저 세상에서 구원, 내세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의 구원은 저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이다”라고 강조한다. 한 마디로 성경적 구원은 내세구원이 아니라, 현세구원이라는 것이다. 요약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처럼, 창조세계의 궁핍과 억압으로부터 창조의 온전한 회복으로서 구원이며<sup>30)</sup>, 현세적 (thisworldly) 번영으로서 구원이며<sup>31)</sup>, 만물의 회복과 갱신의 구원이다. 따라서 종말론적 하나님나라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 옛 창조를 폐기하거나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창조의 업적들, 즉 현세적 문화의 산물을 갱신하여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본래 목적과 의도를 성취하는 회복과 갱신을 통한 창조세계 전체의 총체적 구원이요, 변혁적 종말이라고 역설한다<sup>32)</sup>.

##### 5). 신칼빈주의와 해방신학의 대화를 통한 샬롬 모티브의 칼빈주의(Shalom Motive Calvinism) (Nicholas Wolterstorff)

복미를 대표하는 기독교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자신을 신칼빈주의 사상적 유산위에서 있다고 전제하면서, 역사상 가장 변혁적인 기독교의 유산으로 네덜란드 신칼빈주의와 남미 해방신학이라고 지목한 다음, 이 두 신학을 대표하는 헤르만 도여베르트와 구스타보 구티에레즈의 세계형성의 신학적 근거들을 분석한다. 그는 카이퍼 전통의 신칼빈주의는 세계상황을 가난과 같은 사회적 동인에서 찾지 않고, 신앙과 우상이라는 신학적 동인(動因)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월터스토프는 가난의 비참이라는 사회현실은 죄가 초래한 결과이며, 그것의 근원적 원인인 ‘신앙 vs 우상’으로 파악한 신칼빈주의의 관점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그런데 월터스토프는 카이퍼사상을 체계화한 도여베르트의 분화(differentiations)와 개현 (disclosure)이라는 착상은 역사와 문화가 미분화에서 분화의 과정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낙관적인 방향을 깔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 창조의 법질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가난이 주는 비인간적 비참에 대한 사회현실 인식과 사회학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신칼빈주의의 신학체계에 결여된 요소를 남미 해방신학은 역사의 이면에 대한 인식, 즉 역사의 희생자들의 관점에서 이 세계의 비참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난이라는 역사적 실재를 죄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신학이 가지는 추상적인 죄 관념을 극복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월터스토프는 해방신학은 반대로 죄의 신학적 차원,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반역으로서 죄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기독교 구원이 샬롬

30) “구원은 하나님이 궁핍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에서 구하시고, 그 결과 그들이 회복되어 온전해 지는 것이다. 온전함 또는 행복은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이며, 온전함을 방해하는 것-모든 형태의 죄와 악과 죽음-은 근본적으로 반창조적이다. 궁핍한 자들의 구원과 그들의 (하나님과 타인과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행복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모든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미들턴, 새 하늘과 새 땅, 116. 이러한 구원관은 정치신학과 내용적으로 결합된다.

31) 미들턴, 새 하늘과 새 땅, 114-116.

32) 미들턴, 새 하늘과 새 땅, 59. 종말을 세계의 폐기가 아니라 세계의 변형에 역점을 두고, 미래 천국과 현세문화를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은 신칼빈주의자들의 문화변혁적 종말론의 특징의 하나이다. 리처드 마우의 이사야 60장 해석을 보라. R. J. Mouw, *When the Kings Come Marching in: Isaiah and the new Jerusalem*, 한화룡 역,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문화, (두란노, 2001). 이와 일치한 입장으로 하워드 폴 마샬,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서울: IVP, 2000), 송인규, 일반은총과 문화적 산물,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을 지향한다면, 교회가 선포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 편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월터스토프가 해방신학과 신칼빈주의를 적대적인 신학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여 통합하여 사회신학적인 성찰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사실상 남아공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칼빈주의적 관점의 응답이라는 측면이 농후하다.<sup>33)</sup>

월터스토프에게 보여지는 세계형성적 칼빈주의는 단순히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원리에 따른 세계관적 틀에 근거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바로 이점이 기독교세계관이 사회현실로부터 유리되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변적인 변혁논리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가난과 억압의 사회현실을 구조악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러한 사회체제로부터 살롬을 향한 교회의 사회적 실천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이다<sup>34)</sup>.

#### 6). 남아공 인종차별상황에서 칼빈신학을 재조명하는 해방 모티브의 칼빈주의(Liberation Motive Calvinism) (de Gruchy)

세계변혁적 칼빈주의를 모색하는 또 다른 흐름으로 남아공 인종차별의 상황에서 칼빈과 칼빈주의를 신학적 유산을 근거로 하여 소위 ‘해방하는 개혁신학’, 혹은 ‘개혁신학적 해방신학’을 시도하는 드 그루시(de Gruchy)를 들 수 있다. 그의 신학적 출발점은 본래 사회-정치적 변혁을 추구하던 종교개혁적 개혁신학이 왜 남아공의 화란개혁교회에 의해 억압과 차별을 자행하는 인종차별의 신학(Theology of Apartheid)으로 변질되어 사회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가를 지적한다. 그루시는 남아공의 개혁신학이 국가신학의 시녀가 됨으로써 사회의 지배계급과 결탁하여 흑백 인종차별을 신학적으로 옹호하는 차별하는 신학이 되었으며, 그 결과 남아공의 개혁신학은 해방하는 개혁신학(Liberating Reformed Theology)이 아니라 ‘해방되어야 할 신학’이 되었으며, 이를 위해 칼빈과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해방신학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그루시는 개혁신학이 억압과 착취와 차별의 신학논리를 극복하고, 흑백 인종차별을 합리화하는 ‘질서의 신학’으로부터 해방하는 변혁적 신학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희생자들의 안경으로 성경을 읽을 것을 제안하며, 해방신학의 중심테제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착상을 칼빈의 선택론과 연결하여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론을 말하면서 사회적 죄론과 은총과 회개에 대한 사회적 해석을 시도하면서, 종교개혁의 ‘항상 개혁해 가는 교회’를 인종차별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sup>35)</sup>

33) N. Wolterstorff, 『정의와 평화가 입을 입을 때까지』 21, 25, 33, 52.

34) 이 점은 한국의 기독교세계관운동이 어떤 형태로든 신칼빈주의적 변혁신학을 정치적 맥락의 사회변혁적 신학과 여하한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었으며, 이를 오직 기독교문화형성의 차원에 국한함으로써,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그것을 통한 정치적 실천의 함의가 풍부한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유산을 순전히 비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기독교세계관운동은 문화, 예술, 학문(지성), 과학 영역에 치중하였을 뿐 사회적 구성을 위한 개혁주의 관점의 세계형성론에 대한 성찰은 미진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월터스토프는 기독교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관한 중요한 저서를 줄기차게 출간하고 있다. Justice: Rights and Wrongs(2010), Justice in Love(2011), Hearing the Call: Liturgy, Justice, Church, and World(2011), Journey toward Justice: Personal Encounters in the Global South(2013)

35) J. W. de Gruchy, *Befreiung der reformierten Theologie: Ein südafrikanischer Beitrag zur ökumenischen Diskussion*, (Chr. Kaiser: Gütersloher Verlag, 1995), 이철호 역, 『자유케 하는 개혁신학』 (서울: 예영, 2008).

기독교정치의 유형(2)

	Catholic	Kuyperian	Lutheran	Yoderian
유형별 특징	콘스탄틴주의 성직주의적 교회국가	콘스탄틴주의 국가교회	콘스탄틴주의 국가교회	반 콘 스탄 틴 주 의 독립교회
	교회국가일치형	대교회형 (교회국가협력형)	대교회형 (교회국가협력형)	소종파형 (sectarian)
	종합형 (synthesis)	변혁모델 (transform)	역설모델 (paradox)	반정립형 (antithesis)
신학적 원리	교회의 범세계 통치론	그리스도 왕적 통치론	두왕국론	산상수훈
	창 조 계 시 중 심 적 (창조와 구원은 일 치한다)	창조계시중심적 (창조와 구원은 일 치한다)	창조와 구원은 별 개이며 모순된다	창조보다 구원을 우선시 한다
	은총은 자연을 완성한다	복음과 율법 은총은 자연을 회 복한다	율법과 복음 은총과 자연은 모 순적이다	율법과 복음 은총과 자연은 모 순적이다
	십자가와 칼	기독교현실주의 (롬13장 십자가와 칼)	기독교현실주의 (롬13장 십자가와 칼)	성경적 현실주의 (마5-7장 십자가 와 칼은 공존할 수 없다)
특징	승리주의	승리주의	순응주의	불순응주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나라는 지 상의 가시적 교 회안에, 전세계위 에 보편적으로 현실화된다	하나님나라는 개 인과 교회를 넘 어 삶의 전영역 에서 그리스도인 의 변혁활동으로 실현된다	하나님나라, 즉 그 리스도의 통치는 신자들의 모임 인 교회에 실현되 고, 국가영역은 자 율적으로 위임된 다	그리스도의 통치 는 세계전체에 보편적이다. 그러 나 하나님나라의 현실은 구속된 교회의 가시적인 특질을 통해 드 러난다
사 회 실 천 방식	성례전적 신비, 사제주의적 교도 권의 선포, 가시 적 교회사회의 구현	구두 선포적이며 <b>사회행동적 증거</b> 적극적 참여주의, 사회행동주의	교회와 국가의 영 역을 구분하여 우 위임하는 방식	세상과 전혀 다 른 대조사회, 대 항사회로서 교회 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b>존재방 식의 증거</b>
	공동선 보편주 의	삶의 전영역에서 보편주의	국가에 위임하는 정치	교회론적 특수주의